What`s Up, OITA!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김진아 (pu101502@pref.oita.jp) 2016년 11월 호

「What`s Up, OITA!」는 세계에서 활약하고 계시는 오이타와 인연있는 여러분들께,
일본 오이타현의 '지금'을 전달해드립니다.

【인사】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과장 호리 슌로(堀　俊郎)

인구 당 유학생 수가 일본 1위인 오이타현에서 유학생은 지역의 보물과도 같습니다. 약 80개국 출신의 3,400명의 유학생이 지역 주민들과 교류하고 배우며, 오이타가 제2의 고향이 되었다고 말하며 졸업합니다. 현에서는 지난 달, 벳푸시에 유학생 비즈니스 센터를 개설하고 유학생의 현내 취업 및 창업을 서포트하는 등 앞으로도 유학생들이 활약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이타현 주목 기사>

싱크로 인 온천의 속편! 청춘드라마「가자, 싱크로부!」

온천의 원천수와 용출량 일본 제일을 자랑하는 오이타현의 홍보 CM「가자, 싱크로부!」가 공개되었습니다. 새로운 CM은 오이타현 내 각지의 개성 가득한 온천에서 화려한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의 연기를 뽐내 화제가 되었던「싱크로 인 온천」의 속편으로 오이타현내 어느 학교의 싱크로부를 무대로 펼쳐지는 청춘 스토리입니다. 고등학교 및 대학교를 졸업하여 오이타현을 떠나는 젊은이들에게 보내는 '오이타를 떠나도 오이타현은 언제든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메세지를 담은 U턴 촉진 동영상입니다. 웹사이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onsenkenoita.com

럭비 국제교류 사업

10월 10일, 2019년에 오이타현에서 개최되는 럭비 월드컵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하여 벳푸시의 자매도시인 뉴질랜드의 로터루아시 고교생들을 초청하여 초등학생과의 교류사업 및 오이타현 고교 선발팀과의 럭비 교류시합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일본을 처음 방문하게되어, 일본의 전통문화 및 홈스테이 체험을 통해 상호이해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ALT 아론 선생님의 동영상 수상

자치체국제화협회에서는 JET프로그램 30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로서 'JET참가자들이 전하는 일본의 지역'을 테마로 동영상 콘테스트를 개최하였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응모된 107개 작품 중 미국 출신의 키츠키시 ALT 아론 존스 선생님의 동영상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가 시즌 상(가을,겨울)을 수상하였습니다.

수상소감 : JET프로그램을 통해 키츠키에서의 경험을 여러분과 공유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훌륭한 JET프로그램과 일본 영어 교육에 참여할 수 있어 감사할 따름입니다.

『千里の道も一歩より』 (Little by little, one goes far.)
Aaron Jones 【大分県杵築市】 アメリカ出身

What`s Up, OITA!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김진아 (pu101502@pref.oita.jp) 2016년 11월 호

오이타 100% 즐기기! 키지마고원 파크

아소 쿠쥬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있는 벳푸시의 키지마 고원에는 골프 클럽과 호텔 등의 리조트 시설과 오이타현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키지마고원 파크가 자리해있어, 가족 단위의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청명한 하늘과 시원한 바람이 불던 10월의 어느 날, 키지마고원 파크에 다녀왔습니다. 벳푸역에서 버스를 타고 유후인으로 이어지는 산길을 꼬불꼬불 지나길 35분, 키지마고원 파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정류장에서 조금만 걸으면 도착하는 정문에서 입장권과 자유이용권을 구매하고 안에 들어가니 놀이기구를 타는 어린이들의 웃음 소리가 반겨주고 있었습니다.

키지마고원 파크는 도심지에 있는 여느 놀이공원과는 달리 아름다운 자연으로 둘러쌓인 국립 공원 내에 위치하여 대자연속에서 재미와 여유를 함께 느낄 수 있는 흔치않은 경험을 만끽할 수 있는 곳입니다. 1967년 오픈하여 꽤 오랜 역사를 지닌 놀이공원임에도 불구하고 스릴 넘치고 스케일이 큰 놀이기구가 많아 어른들까지 충분히 만족시켜줍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 인기는 키지마고원 파크를 대표하는 놀이기구 쥬피터입니다. 1992년에 생긴 일본 최초의 목제 롤러코스터로 20년 이상 키지마고원 파크의 심볼로 자리잡아 변함없는 인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키지마 고원 파크가 즐거운 이유 다른 하나는 가족 단위 관광객을 위한 시설이 다양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유아들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놀이시설은 물론, 파크 내에 자리한 장난감 왕국은 초대형 어린이집을 연상시킬 만큼 거대한 실내 놀이터에서부터 놀이와 학습을 겸한 다양한 체험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겨울에는 아이스링크장, 여름에는 얕은 풀장 등 계절 한정으로 운영되는 곳도 있어 계절 별로 방문하기에도 좋습니다. 평일에는 한산한 편이라 대기 시간이 길지 않아 짧은 시간 내에 많은 놀이기구를 탑승할 수 있으나, 레스토랑과 매점 등 영업을 하지 않는 곳이 많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 놀이기구의 운행정보 및 영업시간을 알아보고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벳푸역 및 유후인역에서 출발하는 버스 왕복 티켓과 입장권 및 자유이용권을 세트로 판매하는 저렴한 티켓을 벳푸역 종합안내소 및 버스센터 등에서 구매할 수 있으니, 벳푸나 유후인으로의 온천 여행을 계획 중이시라면 활력소를 더해주는 키지마고원 파크도 함께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 입장료 : 어른 1500엔, 어린이 600엔
자유이용권 : 어른/어린이 2700엔

What`s Up, OITA!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김진아 (pu101502@pref.oita.jp) 2016년 11월 호

오이타 100% 즐기기! 키지마고원 파크의 놀이시설

◇ 쥬피터 : 일본 최초의 목제 롤러코스터로 미송 6만그루가 사용되어, 목제 특유의 삐걱거리는 소리와 울림이 일반 롤러코스터와는 또 다른 차원의 스릴감을 맛보게 합니다. 멀리서도 시선을 사로 잡는 거대한 규모와 최고속도 91km의 스피드, 목제 구조에서 느낄 수 있는 아름다움까지 쥬피터가 키지마고원 파크의 심볼인 이유를 설명해줍니다.

◇ 뉴튼 : 지상 40m높이까지 올라가지만 표고 700m높이에 위치해 있는 놀이공원 특성 상, 체감높이는 훨씬 높습니다. 눈 앞에 광대하게 펼쳐지는 아름다운 풍경에 잠시 정신을 뺏겨 있노라면 눈깜짝 할 사이에 지상으로 떨어지는 스릴을 경험하게 됩니다.

◇ 포세이돈30 : 30m의 높이를 자랑하는 후룸라이드로 시속 80km의 속도로 내달리다 거대한 물보라를 일으키며 떨어집니다. 가운데에 있는 다리에서 정면으로 박력넘치는 물보라를 볼 수 있으며, 타는 재미는 물론 보는 재미까지 만족시켜줍니다.

◇ 관람차 : 키지마 고원 파크의 관람차는 매우 특별한 관람차로서 유명합니다. 평범한 곤돌라 중 2대는 오직 의자만 있어서 다리는 공중에 떠있는 채로 타게됩니다. 약 11분동안 천천히 돌아가는 관람차에 올라타 높이 50m까지 올라가게되는데 일반 관람차에선 느끼지 못하는 해방감을 느끼실 수 있을겁니다.

◇ 고카트 : 1인용과 2인용 코스가 따로 마련되어 있으며, 총 길이 1km의 숲 속 코스를 운전합니다. 경쟁식이 아니므로 여유롭게 바람을 가르며 달릴 수 있습니다. 봄에는 벚꽃, 여름에는 수국, 가을에는 단풍 등 저마다의 계절 풍경을 느낄 수 있는 코스입니다. 특히 털털거리는 자동차가 마치 경운기에 탄 느낌을 주어 색다른 재미를 선사해줍니다.

◇ 족욕탕 : 일본 제일의 온천 용출량을 자랑하는 벳푸에 있는 만큼 키지마고원 파크 안에는 무료 족욕탕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놀이공원을 돌아다니며 지친 다리를 쉬어주고 가는 곳으로 키지마고원파크 일대를 내려다보며 선선한 가을 바람을 맞으니 순식간에 피로가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키지마고원 파크에서만 즐길 수 있는 힐링스폿입니다!

평소 놀이공원을 좋아하지만, 오이타현에 있는 놀이공원을 방문해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키지마고원 파크는 고원에 자리잡아 자연과 어우러지며 멋진 풍경과 계절마다 다른 느낌을 자아낸다고 하는데요. 단풍으로 물든 풍경도 궁금해지네요!

국제교류원 김진아